

# 길 군 악 攷

尹 致 富\*

## 목 차

1. 머리말	3.2. 韓國口碑文學大系本
2. 歌辭의 길군악	3.3. 兩本의 비교
2.1. 靑丘永言本	4. 길군악의 空間構造
2.2. 校合樂府本	4.1. 空間構造
2.3. 兩本의 비교	4.2. 空間構造의 상정성
3. 民謠의 길군악	5. 마무리
3.1. 韓國民謠集本	參考文獻

## 1. 머리말

「새 우리말 큰사전」에는 「길군악」은 조선조 때 12가사의 하나로서 민요적인 색채가 담겼으며, 앞뒤 연결이 산만하고 노래 중간에 입타령이 끼어 있는 지은이와 연대 미상의 작품으로 일명 「路謠曲」 또는 「行軍樂」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歌辭로서의 「길군악」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서 民謠的인 성격도

\* 漢學專門大學 敎授

1)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 우리말 큰사전」(三省出版社, 1983), p.544.

있음을 시사하는 말이다. 사실 「靑丘永言」과 「校合樂府」의 「길군악」은 歌辭로서 언급되고 있으며, 「韓國民謠集」과 「韓國口碑文學大系」에는 「길군악」을 民謠로서 취급하고 있다.<sup>2)</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길군악」의 이본상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그 空間構造의 상징성을 파악함으로써 가사와 민요로서 혼용되는 「길군악」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한다.

## 2. 歌辭의 길군악

### 2.1. 靑丘永言本

靑丘永言本の 「길군악」은 「軍樂」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오 나니로 나이니로 나니로 이너어나 니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나노나 노나니나로 노나니나로나”와 같은 입타령(군소리)이 붙어 있다. 제1장은 “오날도 하 심심하니 길軍樂이나 ㅅ여보시”의 단 4구로 되어 있다. 제2장은 “가소 가소 주너 가소 주너 가면 너 못살가 正方山城 北門 밧기 ㅅ 도라지고 달이 도다온다 눈비 찬비 찬이슬 맛고 홀노 셋는 老松남귀 떡을 일코서 홀노 셋네 너 閼氏 네 이리 ㅅ다스 너 못살냐 에업다 이년아 말들러를 보아라”라고 하여 風霜苦楚를 겪으며 짝을 잃고 셋는 늙은 소나무에 자신을 비유시켜 자기의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다. 제3장은 “조고마흔 上佐중이 쟈도침물 두루쳐 메고 萬疊靑山을 석 드러

2) 金聖培·朴魯春·李相賢·丁益燮 編著, 「註解歌辭文學全集」(集文堂, 1981), pp. 257-258.

서울大學校 東亞文化研究所, 「國語國文學事典」(新丘文化社, 1981), p. 129.  
「韓國文學大事典」(廣智出版社, 1980), p. 717.

3) 任東權의 「韓國民謠集」 I·II·III·IV에는 모두 14편의 「길군악」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玄容駿·金榮敎의 「韓國口碑文學大系」 9-3에는 2편의 「길군악」이 실려 있다. 지금도 濟州道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지방에는 「길군악」이라고 하여 唱民謠로서 전승되고 있다.

## 길군악攷

가서 크다라흔 괴양남굴 이리로 썩고 저리로 썩어 제 홀노 썩어너니 너關氏네 이리 ㅅ다스 너 못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上佐儻이 깊은 산에 들어 伐木함을 견주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여인을 빈정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2. 校合樂府本

校合樂府本の「길군악」은 두 편이 실려 있는데, 한 편은 「길고(군)낙」이라 되어 있고, 다른 한 편은 「길군악」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오날도 하 심 심허(ㅅ)니 길고(군)낙이나 허여보즈(ㅅ샤를보자) 어이(에) 업다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와라(자)"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노오나 어너니나로 노 오오 나니루 너니루 너닌이루 나니나루 니너(인업다 이년아 말뚏거라)나 니나루 노오오 너니 나루노나 베니나니나루 노오나니네류 노오너니 나루노라"라는 입타령이 붙어 있다. 제2장은 "가소 가소 주네 가소 주네 가다셔(도손) 너 못살랴 정방산성(定方山城) 북문(北門) 밧게 힌 도라지고(구)셔 달이 도다운다 눈비 촌비 찬니(이)슬 맞고 홀노 셋는 노송(老松) 남기 죽을 일코셔(제) 홀노 셋네(살아) 너가(느니) 각시에(關氏는) 이리(로) 허다(하더)셔 너(이) 못살랴 예업다(어허어드)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아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표기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 제3장은 "궤(조)고만현(훈)상제(上佐)중이 부도치를 두러(쳐) 메고 만첩산중(萬疊山中) 드러(물)가셔 크(커)다란현 고양남굴 이리로 썩고 저릴고 썩어(고)셔 제 홀노 썩어 널(너)라 너가(느니)각시에(논) 이리루(로) 허다(ㅅ터)셔 너(이) 몰살랴 예업다(어이업다)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와라(자)"라고 되어 있어 역시 上佐儻이 깊은 산에 들어가서 벌목함을 견주어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여인을 빈정거리고 있다. 제4장은 靑丘永言本에는 없는 것으로 "네라헌들 한궁녀(漢宮女)며 너라헌(훈)들 비군즈(非君子)라 남의 쌀이 너쑤이며 남의 아들이(리) 나쑤(분)이라 죽기살기는 못날닐노(놀로)만 결단(決斷)을 허(ㅅ)자"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입타령이 붙어 있는데 "노오나 너니나노 노나니로 나니로 나니로나너니 노나일이루 나니로 니너나니나노노 오나니나 노노나너닐나니나

노노오너니나 노노라"라고 되어 앞의 입타령과는 조금 다르다.

또한, 校合樂府本에는 또 하나의 <길군악>이 있는데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으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입타령이 붙어 있다. 제1장은 "秋夜空山 저문날에 黃菊丹楓 다 늦는다"의 단 4구로 가을 달 밝은 밤에 노오란 국화와 단풍이 들어 있는 서경적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입타령이 붙어 있는데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얼스쫏타 조흔 경기"라고 되어 있다. 제2장은 "구경 가세 구경가세 강릉 경포터로 달 구경가세"의 역시 단 4구로 강릉 경포대에 달 구경가자는 내용이며, 그 다음에는 "지야 지야 지야 지야"라는 입타령이 붙어 있다. 제3장은 "달은 붉구 맹랑헌데 任의 심각이 절노난다"로 되어 달 밝은 밤의 임 생각을 노래하고 있다. 그 다음의 입타령은 "지야 지야 지야 지야"로 되어 있다. 제 4 장은 "萬頃蒼波 맑은 물에 고기 낚가서 술 빚구네"라고 하여 만경창파의 물 속에서 고기를 낚아 술을 마시는 내용이다. 역시 그 다음의 입타령은 제2장과 제3장이 끝났을 때 부른 입타령과 동일하다. 제5장은 "白日青天 뜬 기럭아 任의 消息을 傳ᄃᆞ고 가게"라고 되어 있어, 제3장의 임 생각과 연관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제5장 다음에는 제1장 다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지야 얼스쫏타 조흔 경기"라는 입타령이 붙어 있다.

### 2.3. 兩本의 비교

이제 靑丘永言本의 「軍樂」과 校合樂府本의 「길고(군)낙」을 비교하여서 그 관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양본의 작품을 대조해 보면 <표 1>과 같다(편의상 띄어쓰기를 함).

이렇게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타령의 표기는 물론 전체적인 표기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발견된다. 즉, 제1장의 표기에서는,

軍樂 → 길고(군)낙

(표 1)

길군악곡

구성	양본	靑丘永言本	校合樂府本
제 1 장		오늘도 하 심심하니 軍樂이나 하여 보세	오늘도 하 심심허(하)니 길고(군)낙이나 허여 복주(하사를 보자) 어이(에)업다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와라
입 타 령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오 나니로 나니로 나이니로 나니로 이너어나 니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로나 노나니나로 노나니 나로다	노오나 어너니나로 노오오 나니루 너니루 너니이루 나니나루 니너나(이업다 이년아 말듯거라) 니나루 노오오 너니 나루노나 네니나니나 노오나니네루 노오너니 나루노나
제 2 장		가소 가소 너니 가소 저니 가면 너 못살가 正方山城 北門 밧기 하 도라지고 달이 도다 온다 눈비 찬비 찬이슬 맞고 홀노 셋는 老松남기 떡을 일코셔 홀노 셋네 너 關氏네 이리 하다스 너 못살라 예업다 이년아 말들러를 보아라	가소 가소 저네 가소 가다셔(도산) 너 못살라 정방산성(定方山城) 북문(北門) 밧게 휘 도라지고 (구)셔 달이 도다 온다 눈비 찬비 찬니(이)슬 맞고 홀노 셋는 노송(老松) 남기 죽을 일코셔 (제)홀노 셋네(살아) 너가(느니) 각시에(關氏는) 이리(로) 허(하)다(터)셔 너(이) 못살라 예업다(어허어든)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아라(자)
입 타 령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오 나니로 나니로 나이니로 나니로 이너어나 니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로나 노나니나로 노나니 나로다	
제 3 장		조고마흔 上佐증이 斧刀치를 두루쳐 예고 萬壘靑山을 석 드러가셔 크다라흔 고양남글 이리로 썩고 저리로 썩어 제 홀노 떡어너니 너 關氏 네 이리 하다스 너 못살라	췌(조)고만헌(훈) 상제(上佐)증이 부도침틀 두러(쳐) 예고 만첩산중(萬壘靑山) 드러(를) 가셔 크(커)다란헌 고양남글 이리로 썩고 저리로 썩어(고)셔 제 홀노 썩어닐(너)라 너가(느니) 각시에(는) 이리루(로) 허다(하)터)셔 너(이) 못살라 예업다(어이업다) 이년아 말드(무)러를 보와라(자)
입 타 령		노오나 너니나로 노오오 나니로 나니로 나이니로 나니로 이너어나 니나로 노오오 너니너로 나로나 너에 나로나 노나니나로 노나니 나로다	
제 4 장			베라헌들 한궁녀(漢宮女)며 너라헌(헌)들 비군주(非君子)라 남의 찰이 너 썩이며 남의 아들이(리) 나쁜(분)이라 죽기 살기는 모랄 널노(놀로)만 결단(決斷)을 허(하)자
입 타 령			노오나 너니나노 노나니로 나니로 나니로나 너니 노나일이루 나니로 니너나니나노노 오나니나 노노나너 널나니나 노오너너라 노노나

ᄒ여 → 허여

보세 → 보주

제2장에서는,

주너 → 주네

가면 → 가다셔(도흔)

너못살가 → 너못살랴

正方山城 → 정방산성(定方山城)

밧긔 → 밧게

ᄒ도라지고 → 힌도라지고(구)셔

찬비 → 촌비

찬이슬 → 찬니(이)슬

셋논 → 셋는

딱 → 족

너ᄒᄒ씨비 → 너가(너니) 각시에(ᄒᄒ씨ᄒ)

ᄒ다스 → 허(하)다(터)셔

말들러를 → 말드(무)러를

제3장에서는,

조고마흔 → 쵸(조)고만헌(ᄒ)

두루쳐 → 두러(쳐)

크다라흔 → 크(커)다란ᄒ

씩어 → 썻어(교)셔

떡어너니 → 떡어닐(너)라

너ᄒᄒ씨 → 너가(너니) 각시에(ᄒ)

이리 → 이리루(로)

ᄒ다스 → 허다(ᄒ터)셔

못살냐 → 못살랴

### 길군악攷

앞의 것은 靑丘永言本의 표기요, 뒤의 것이 校合樂府本의 표기다. 대체로 보아 靑丘永言本이 시대적으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길군악」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후세로 전승되거나 전사될 거치면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어학적인 표기 차이는 국어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러나, 校合樂府本에는 靑丘永言本에는 없는 제4장이 추가되어 있으며, 靑丘永言本에는 삽입되어 있는 제2장과 제3장이 끝났을 때의 입타령이 빠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길군악」이 하나의 사실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그것은 校合樂府本의 또 다른 「길군악」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앞서 말한 「軍樂」이나 「길고(군)낙」과는 사실이 판이하게 다르다. 이처럼 하나의 사실로 고정되지 않고 적어도 두 가지 사실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은 「길군악」 12가사<sup>4)</sup>의 하나로 歌唱歌辭로 불리는 평민가사라는 점과 관계가 깊다. 이는 곧 歌唱歌辭인 「길군악」의 민요적 성격과도 관련된다.

## 3. 民謠의 길군악

### 3.1. 韓國民謠集本

任東權의 「韓國民謠集」 6책 가운데 I·II·III·IV의 4책에는 모두 14편의 「길군악」이 수록되어 있다. 「韓國民謠集」 I에 3편, II에 6편, III에 2편, IV에 4편 등인데, 이 가운데서 III의 「길군악」 1,2번과 IV의 「길군악」 1번은 똑같이 珍島 지방에서 채록된 것으로 사실 및 후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韓國民謠集」 I·II·III·IV의 「길군악」은 12편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경기도 지방에서 채록된 I의 「길군악」 2번은 校合樂府本의

4) 12가사는 「首陽山歌」, 「襄陽歌」, 「處士歌」, 「勸酒歌」, 「梅花打令」, 「白鷗詞」, 「漁父詞」, 「竹枝詞」, 「黃鶴詞」, 「길軍樂」, 「相思別曲」, 「春眠曲」 등이다.

「길군악」과 동일한 사설과 후렴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義州 지방에서 채록된 Ⅱ의 「길군악」 2는 校合樂府本の 「길고(군)낙」의 제3장과 제4장의 순서가 바뀌어졌을 뿐 사설이나 입타령의 후렴은 거의 동일하다. 또한, 이들 韓國民謠集本の 「길군악」들은 그 채록지역도 安義(Ⅰ-1)·京畿道(Ⅰ-2)·濟州(Ⅰ-3, Ⅱ-6)·居昌(Ⅱ-1)·義州(Ⅱ-2)·河洞(Ⅱ-3)·平澤(Ⅱ-4)·珍島(Ⅱ-5, Ⅲ-1, Ⅲ-2, Ⅳ-1)·海南(Ⅳ-2, Ⅳ-3) 등 9개 지역으로 전국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길군악」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입과 함께 자연 속에서 지내자이거나 떠난 입을 그리워하는 것들이다.

### 3.2. 韓國口碑文學大系本

「韓國口碑文學大系」 9-3에는 제주에서 채록된 「길군악」이 두 편이나 실려 있다. 제주에서는 이 「길군악」을 「질군악」이라 하여 唱民謠로서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도 옛 旌義縣의 현청 소재지였던 지금의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지역에서만 전해지고 있다. 제주에서 唱民謠 「질군악」이 전해지는 것은 歌唱歌辭 「질군악」의 전승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 같다. 旌義縣에는 妓女들의 교육장소가 있었다고 하며, 지난날 제주에서 「질군악」 등의 민요를 주로 전파한 이들은 이 妓女였던 듯하다. 妓女들은 한본토의 唱民謠(또는 歌唱歌辭)를 배워 익히고 이를 애창하는 가운데 민간에도 자연스럽게 번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5)</sup> 이 韓國口碑文學大系本の 「길군악」 두 편도 이 곳 城邑里에서 채록된 것으로 그 사설이나 입타령의 후렴이 비슷하다. 이 두 편을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보면 <표 2>와 같다.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군악」(1)과 「질군악」(2)는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7장과 각 장이 끝날 때의 입타령은 동일하나, 제8장·제9장·제10장은 사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질군악」

5) 김영돈, 「산천초목」, 『濟州島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濟州道, 1986), pp. 45-46.



<표 2>

길 군 악 ㉘

구성	이본	질 군 악 (1)	질 군 악 (2)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1 장		청사초통 불 불려놓고 이해요 춘양방으로 에해라 밤소일간다	청사초통 불 불려놓고 이해요 춘양방으로 에해라 밤소일간다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2 장		너는 어떤 제집아이로 이해요 장부간장 에해라 다죽여가나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3 장		돌아오는 반오처럼 이해요 돌이 좋으니 에해라 집어나놓고	돌아오는 반달처럼 이해요 돌이 좋으니 에해라 집어나놓고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4 장		만수무강 글자를 새겨 이해요 수명장수 에해라 끈이나돌고	만수무강 글자를 새겨 이해요 수명장수 에해라 끈이나돌아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5 장		서울가신 낭군님옷을 이해요 각시하나씩 에해라 채와나보자	서울가신 낭군님옷을 이해요 각시하나씩 에해라 채와나보자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6 장		가면은가고 말면은 말았지 이해요 조선신고서 에해라 씨질을 가나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7 장		너도총각 나도나총각 이해요 휘양머리 에해라 어기나 노나니라	너도총각 나도나총각 이해요 휘양머리 마주잡고 입맞추는 총각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8 장		간다못간다 얼마나 울언 이해요 경거장마다 에해라 한강수만 뚫다	노들강변 비둘기호쌍 이해요 검은 콩을 에해라 혼방울을 물고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 9 장		오라고호턴 밤이나가고 이해요 동네술집인 에해라 해낮이간다	암늬몰어 숫늬를 주고 이해요 숫늬몰어 에해라 암늬를 준다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해나니 나노 영혜예요 요나나오라 예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제10장		아침이우으센 배고파울고 이해요 저녁이 우으센 에해라 배고파운다"	

6) 「질군악」(1)의 제10장은 원래 두 장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으나, 그것은 창자의 구연상황에 따라 이등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장으로 합치는 것이 앞의 다른 장들과 비교할 때 통일성이 있다.

구성 \ 이본	질 군 악 (1)	질 군 악 (2)
		숫놈압놈 어르느소리 이헤요 늙은 과부는 에헤라 속안판다
입 타 령 (후렴)	아하아하 에-헤나니 나노 영헤에요 요나나오라 에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아하아하 에-헤나니 나노 영헤에요 요나나오라 에행에라 어기나 노나니라

(2)에서는 「질군악」(1)의 제2장과 제6장이 빠져 있는데, 이는 구연하는 창자의 새로운 창작 내지는 사실을 잊어 버려 빠뜨린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제8장·제9장·제10장의 사실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질군악」의 사실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변이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셈이 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그 주제로 하고 있어 韓國民謠集本의 「질군악」과 사실의 내용에 있어 일맥 상통한다.

### 3.3. 兩本의 비교

韓國民謠集本에도 제주에서 채록된 두 편의 「질군악」이 실려 있다. 이들은 韓國口碑文學大系本에 수록된 두 편의 제주 지방에서 채록된 「질군악」과는 사실이 다를 뿐 아니라 입타령도 동일하지 않다. 그런가 하면 韓國民謠集本의 두 편의 「질군악」역시도 사실과 입타령이 서로 다르다. 이는 제주에서도 한 유형의 「질군악」이 전승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 유형 이상의 「질군악」이 전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내용에 있어 입과 함께 자연 속에서 지내자거나 입 생각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유사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민요로 전해지는 「질군악」은 이러한 내용을 기저로 하여 그 사실이나 입타령은 얼마든지 전승자의 창작에 따라 불러질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民謠集本에 나타난 두 편의 海南에서 채록된 「질군악」역시도 사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뒷받침된다.

## 4. 질군악의 空間構造

#### 4. 1. 空間構造

인간은 실질적으로 공간 속에서 창조되어 존재되고 활동하며 소멸된다. 이는 공간 속에서 행위하며 공간을 지각하고 공간에 존재하고 공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 공간이 인간 사회의 소유주뿐만 아니라 넓게는 대 우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보면 비록 인간이 공간 속에서 창조되기도 하지만 인간 또한 또 다른 공간을 창조한다. 즉, 인간이 일정한 대상이나 국면에 직면했을 때 하나의 의미있는 공간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태껏 무의미하던 공간이 의미있는 실존적 공간이 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실존적 공간의 有意性에 대하여 校合樂府本 소재의 두 편의 「길군악」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校合樂府本의 두 편의 「길군악」을 실례로 삼은 것은 靑丘永言本이나 韓國民謠集本에도 이들과 거의 동일한 「길군악」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길군악」이 남녀간의 애정을 주제로 하고 있어 이 두 편으로써 「길군악」의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校合樂府本의 첫번째 「길고(군)낙」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은 話者와 떠나가는 임과의 대립관계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년'은 곧 자기에게서 떠나가는 여인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와 떠나가는 임과의 대립은 제2장·제3장·제4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제2장의 '老松남기'와 짝의 대립이 그것인데 老松나무는 화자를, 짝은 떠나가는 여인을 비유한 것이다. 제3장은 '괴양남기'와 '上佐중'과의 대립인데, '괴양남기'는 화자 및 老松나무와 연결되며 上佐승은 '이년' 및 짝과 연결된다. 그것이 마지막 제4장에서는 非君子와 漢宮女의 대립 및 남의 아들 대 남의 딸, 나와 너의 대립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話者：떠나가는 남=話者：이년

제2장=>話者：떠나가는 남=老松나무：짝=내：내關氏=話者：이년

제3장=>話者: 떠나가는 님=고양나무:상좌중=내:내關氏=話者:이년

제4장=>話者: 떠나가는 님=非君子:漢宮女=남의 아들:남의 딸=나:너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話者: 떠나가는 님=話者:이년=老松나무:작=내:내關氏=고양나무:  
 上佐중=非君子:漢宮女=남의 아들:남의 딸=너=地上:天上=원  
 망(기대):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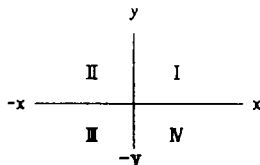
여기서 보면 話者和 떠나가는 님의 갈등이 話者를 둘러싼 현실상황의 갈등으로 이루어진다. 즉, 話者는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話者和 님과의 수평축과 地上과 天上의 수직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수평축과 수직축의 대립관계는 제2장과 제3장에서 공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데, 제2장에서는 '정방산성(定方山城) 북문(北門)밖'이고 제3장에서는 '만첩산중(萬疊山中)'이다. 특히 제2장에서는 해가 지고 달이 돌아옴으로 老松나무가 눈비와 찬 이슬을 맞게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달과 老松나무 사이에는 또 다른 수직축이 형성되고 있다. 이는 곧 天上과 地上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길고(군)낙」에는 Bachelard가 말하는 반향의 공간,<sup>7)</sup> 김열규 교수의 넓이의 공간,<sup>8)</sup> Eliade의 世俗의 공간,<sup>9)</sup> 인 수평축뿐만이 아니라 울림의 공간, 높이의 공간, 聖의 공간인 수직축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sup>10)</sup>

7) Gaston Bachelard, 「空間의 詩學」(郭光洙역, 민음사, 1990), p.90.

8) 金烈圭, 「神話의 空間(I)」, 「韓國文學史」(探究堂, 1983),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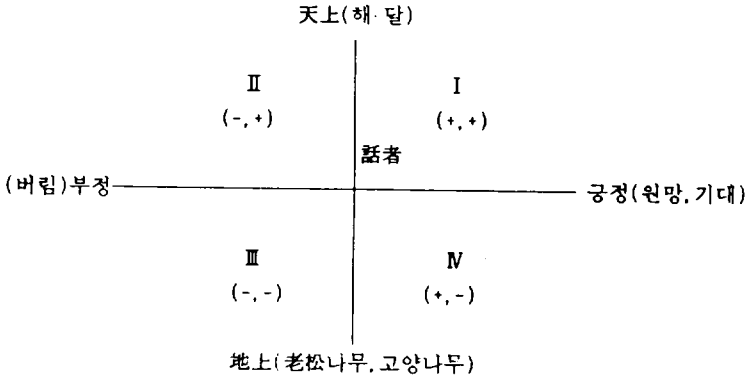
9) Mercia Eliade, 「聖과 俗: 종교의 본질」(李東夏역, 학민사, 1983), p.220.

10) 위의 좌표는 다음과 같은 정식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begin{aligned}
 x: (-x) &= y: (-y) \\
 xy: (-xy) &= (-xy): xy \\
 \therefore xy &= I \\
 (-x) \cdot y &= -xy = II
 \end{aligned}$$

길군악좌



위 도식에서 제 I 사분면의 공간은 화자가 떠나가는 임에 대해 현실적으로 원망은 하면서도 이 현실을 초월하여 기대감을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비록 임이 떠나고는 있지만 화자의 말을 듣고서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공간이다(수평+, 수직+). 해가 지고 달이 돌아오므로 눈비·찬비·찬이슬을 맞고 짝을 잃고서 홀로 섰을 수밖에 없는 老松나무이지만 다시 달이 지고 해가 돌아오면은 눈비·찬비·찬이슬도 맞지 않고 잃었던 짝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한편 이 제 I 사분면의 공간과 같은 성격을 갖는 공간이 제 III 사분면의 공간이다. 이것은 수직축에서 현세적 지상적인 삶(-y)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수평적 삶(-x)을 만남으로써 이루는 공간이다. 즉, 천상이 아닌 지상적인 삶에 속하는 것들은 부정의 고통을 낳는 것들이다.

$$(-x) \cdot (-y) = xy = \text{III}$$

$$x \cdot (-y) = -xy = \text{IV}$$

이것을 x축을 중심으로 하면 I : II = IV : III

y축을 중심으로 하면 I : IV = II : III

의 대립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4개의 항은 I = III, II = IV의 동일항을 갖게 한다.

수평 x=긍정, -x=부정

수직 y=天上, -y=地上

이곳에서 화자는 사랑의 상실, 님과의 단절된 부정의 세계에서 이를 다시 부정함으로 강한 긍정의 세계에 이른다(수평-, 수직-). 제Ⅱ사분면과 제Ⅳ사분면의 공간은 지상적인 것(-y)을 긍정하는 것(x)과 천상적인 것(y)을 부정하는 것(-x)으로 모두 -로 나타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I · II · III · IV의 각 공간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축 \ 공간	I	II	III	IV
수 평 축	+	-	-	+
수 직 축	+	+	-	-
통 합 축	+	-	+	-

두 번째 「길군악」은 모두 제5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秋夜空山 저문 달이 빛어내는 공간과 黃菊丹楓이 피어 있는 것은 그대로 조화된 자연의 세계이다. 가을 밤과 空山の 黃菊丹楓이 合一의 세계에 도달하고 있다. 話者는 가을 밤과 黃菊丹楓이 교접하는 이 순간에 영원을 체험한다. 이것은 인간의 공간적 직관이 그대로 인식적·정서적 체험임을 말해 준다. 話者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의 순간에 제2장에서처럼 강릉 경포대로 달 구경가고 싶은 여흥이 일어나며, 제3장에서의 月に 대한 생각으로 심화 발전된다. 그리하여 제5장에서는 하늘에 뜬 기러기에게 月に의 소식을 전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黃菊丹楓·고기·기러기와 달은 그대로 지상과 천상, 삶의 현실과 彼岸과의 合一을 이루고 있다. 가을 달 밝은 밤, 黃菊丹楓이 물들고 만경창파에서 고기를 낚는 지상과 천상의 合一이 이루어지는 이 신비스러운 공간은 오히려 영혼의 일깨움으로 해서 月に 思想으로 확대되고, 이는 우주로 향하여서 月に 思想으로 확대되고, 이는 우주로 향하여 울려퍼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話者 : 月に = 地上 : 天上 = 黃菊丹楓 : 달 = 강릉 경포대 : 달 = 고기 : 달 = 話者 :

## 길군악

기러기=단절 : 습=버림 : 사랑

여기에서 보면 黃菊丹楓과 달, 강릉 경포대와 달, 고기와 달, 話者と 기러기는 곧 지상과 천상의 수직적 대립을 이루고 있고, 話者と 님, 단절과 습-, 버림과 사랑의 대립은 수평적 대립을 이룬다. 즉, 화자는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입에게 잃어 버린 사랑을 다시 성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수직축과 수평축이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 4.2. 空間構造의 상징성

앞에서 공간구조를 분석해본 결과 수평·수직은 곧 인간의 현실세계와 정신·영혼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 이는 「길군악」의 의미가 수평·수직이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한다.

「길군악」의 공간구조에 의하면 천상적인 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미지가 해와 달이었다. 해가 강렬한 열기의 빛이라면 달은 은은한 고요의 빛이다. 그러기에 해와 달은 입의 사랑으로 상징된다. 해가 점으로 입의 사랑이 끝났음을 알 수 있으며, 달이 뜬으로 입의 사랑을 그리워하게 된다. 해와 달이 없으면 「길군악」의 수직적 공간, 울림의 공간, 높이의 공간, 聖의 공간은 이루어질 수 없다. 수직적 공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길군악」의 공간구조가 단조롭게 되어 의미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길군악」의 수평적 공간까지도 수직적 공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직적 공간 즉 지상과 천상과의 공간이 이루어짐으로 수평적인 공간인 반향의 공간, 넓이의 공간, 세속적 공간의 話者と 입과의 공간구조도 의미를 띄게 된다. 「길고(군)낙」에서의 話者と 떠나가는 입과의 수평적 공간이나 또 다른 「길군악」의 話者と 입과의 수평적 공간은 定方山城 北門 밖과 萬疊靑山의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달과 老松나무·고양나무 및 달과 黃菊丹楓·강릉 경포대·고기와 수직적 공간이 교차되면서 作品內的 自我的 有意義性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간 속에서 존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 실존적 공간의 의미를 획득했을 때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길군악」도 이러한 의미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 5. 마무리

이상에서 「길군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결론삼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歌辭로서의 「길군악」은 靑丘永言本과 校合樂府本이 있었는데, 靑丘永言本의 「軍樂」과 校合樂府本의 「길고(군)낙」은 사실이나 입타령이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校合樂府本의 「길고(군)낙」은 靑丘永言本의 「軍樂」에 비하여 제4장이 더 추가되어 있었으며, 「軍樂」은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입타령이 붙어 있었으나 「길고(군)낙」은 제1장과 제4장이 끝났을 때에만 입타령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사실의 표기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표기상으로 비교할 때 靑丘永言本의 「軍樂」이 校合樂府本의 「길고(군)낙」에 비하여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校合樂府本의 또 다른 「길군악」은 제5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앞의 「軍樂」이나 「길고(군)낙」과는 내용은 다르나 남녀간의 사랑을 그 주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民謠로서의 「길군악」은 韓國民謠集本과 韓國口碑文學大系本이 있는데, 韓國民謠集本에는 내용이 다른 12편의 「길군악」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채록지역도 安義·京畿道·濟州·居昌·義州·河東·平澤·珍島 등으로 전국적이었다. 이로써 「길군악」은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전역에서 전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韓國民謠集本에는 靑丘永言本과 校合樂府本의 「軍樂」·「길고(군)낙」·「길군악」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歌唱歌辭인 12가사의 하나인 「길군악」이 민요적 「길군악」으로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韓國口碑文學大系本의 제주에서 채록된 두 편의 「길군악」은 지금도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지역에서 唱民謠로서 전



### 길군악攷

승되고 있는 것으로, 이는 妓女들에 의해서 불려지던 것이 차차 일반인들 사이에도 불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편의 「길군악」은 韓國民謠集本の 제주에서 채록된 「길군악」과 내용이 다른 것으로 봐서 「길군악」은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길군악」의 공간구조는 話者와 임과의 수평축과 지상과 천상의 수직축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들 수평축과 수직축이 만나는 점에서 화자는 존재하고 있다. 즉, 「길군악」의 수평·수직은 인간의 현실세계와 정신·영혼을 포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길군악」의 의미가 수평·수직이 뻗어나갈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길군악」의 공간구조에 의하면 천상적인 것으로 제시될 수 있는 이미지가 해와 달이었는데, 이들은 임의 사랑으로 상징된다. 해와 달에 의한 천상의 수직적 공간이 없었다면 수평적 공간의 의미까지 무의미하여지며 「길군악」의 의미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간 속에서 실존적 공간의 의미를 획득했을 때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高晶玉, 「朝鮮民謠研究」, 首善社, 1949.
- 金東旭·林基中 共編, 「校合歌集」 一, 太學社, 1982.
- , 「校合樂府」 上, 太學社, 1982.
- 金聖培 外 3人, 「註解歌辭文學全集」, 集文堂, 1981.
- 金烈圭, 「韓國文學史」, 探究堂, 1983.
- 文德守 編, 「世界文藝大辭典」 上, 成文閣, 1975.
-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 編, 「國語國文學事典」, 新丘文化社, 1981.
- 李秉岐, 「國文學概論」, 一志社, 1965.
- 任東權, 「韓國民謠集」 I·II·III·IV, 集文堂, 1961-1975.
- 張師勛, 「國樂總論」, 正音社, 1979.
- , 「國樂大事典」, 世光音樂出版社, 1989.
- 「濟州道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濟州道, 1986.
- 玄容駿·金榮敦,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 黃淳九 編, 「青丘永言」, 韓國時調學會, 1987.
- Gaston Bachelard, 「空間의 詩學」, 郭光洙역, 民音社, 1990.
- Mercia Eliade, 「聖과 俗」, 李東夏역, 학민사, 1983.
- 尹在天, 「行軍樂에 대한 考察」, 「상명사대」 1호, 상명여자사범대학, 1962.
- 전경옥, 「청중의 취향이 삽입된 판소리 가요: 시조·12가사·12잡가·가면극·민요·무가와와의 교섭양상」, 「문화예술」 통권 118호, 문예진흥원, 1988.
- 鄭在鎬, 「雜歌攷」, 「民族文化研究」 第6號,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2.